

[사회]

노래·풍물강좌 옆 공부방 ‘한지붕 두교실’ 주민자치센터 ‘소음 신경전’

방음 제대로 안돼...학생들 “시끄러워 공부 못해요”

광주시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 중인 노래교실·에어로빅 강좌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같은 건물에서 운영 중인 공부방 어린이들과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예산이 부족해 방음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고 무리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광주시 북구 등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자체마다 동사무소와 청소년수련원 등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이 곳에서 노래교실·풍물교실·에어로빅·스포츠 교실·공부방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자치센터는 ▲동구 13곳 ▲서구 15곳 ▲남구 16곳 ▲북구 26곳 ▲광산구 19곳 등 모두 89곳으로 452개의 프로그램을 갖췄다.

그러나 이들 자치센터 강좌 가운데

노래교실이나 에어로빅 댄스 등 과도하게 소음을 유발하는 강좌의 경우 인근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서구 1곳(화정4동) ▲남구 2곳(방림2동·봉선1동) ▲북구 2곳(문흥2동·청소년수련관) 등 5개 주민자치센터는 노래교실과 공부방을 한 건물에서 운영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방학이 되면서 저소득층 학생 등이 공부방을 찾아 공부하고 있는데, 노래교실이나 에어로빅 댄스 교실 등 소음을 유발하는 강좌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

이들 자치센터는 방음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이 곳을 찾는 민원인들도 소음을 참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북구 문흥2동사무소의 경우 매주

화요일 10시~11시까지 이 건물 2층에서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노래교실을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노래교실과 불과 1m 떨어진 맞은편 방은 저소득층 자녀 10여 명이 공부방으로 이용하고 있다.

북구 청소년수련관도 주말·휴일을 제외하고 41명의 학생들이 ‘방과 후 아카데미’ 수업을 받고 있으나 같은 건물에서 진행 중인 에어로빅 댄스 교실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부 이모(40·광주시 북구 문흥동)씨는 “방학기간 동안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공부방에 보내고 있는데, 막상 가보니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노래 소리가 커 잠깐 놀랐다”며 “방학 때만이라도 노래교실 운영을 중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시 “좋은 간판 공모합니다”

23일부터 이틀간 접수

광주시는 바람직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좋은 간판 공모전’ 전시회를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연다.

공모 대상은 광주시에 설치된 광고물 가운데 불법 광고물이 아니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규정에 의한 가로·세로·공연·돌출·지주·옥상 간판 등 6종이다.

심사 항목은 독창성과 조형미, 메시지 내용, 실용성, 자재 활용도, 상품성 등이며 화제와 언론계 관계자와 업계 전문가로 이뤄진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우수작 5점을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좋은 간판 문화는 문화수도 광주의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요소”라며 “좋은 간판 시범거리를 조성하고 간판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등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모작 접수는 23일부터 이틀간 각 구·시·군의 광고협회 사무국에서 할 수 있으며, 광주시 건축주택과(613-4833) 또는 한국옥외광고협회 광주지부(528-6464)로 문의하면 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62돌 광복절 경축행사 다채

제62주년 광복절을 맞아 15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경축식·민주의 종' 타종·천자총통 발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광주시는 이날 오전 10시 광주시민회관에서 박광대 광주시장과 문병민 광주지방보훈청장, 독립유공자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을 열었다. 경축식을 마친 뒤 이들은 동구 금남로 민주의 종각에서 ‘민주의 종’을 33회 타종했다.

전남도도 이날 박준영 전남지사

광복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시 부수산 공원 현충탑을 참배하고, 옥양동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경축행사를 가졌다.

목포시는 이날 유달산 구(舊) 현충탑에 설치돼 있는 천자총통 발표 행사를 열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세계국학원 청년단 광주지부’ 회원 30여명은 광주시 동구 중심사 입구에서 태극기 배지를 나눠 주고, 대형태극기 만들기 및 전시 행사를 열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中 여행사 초청 팸투어

광주시는 오는 17~20일 중국 베이징(北京)과 선양(瀋陽)지역 여행업체 등을 초청해 팸투어를 실시한다.

팸투어 참가자들은 중국여행사 관계자와 중국을 대상으로 한국여행상품을 판매하는 한국여행사 관계자 등 10여명이다.

광주시는 월드컵 경기장과 무등산, 충장로 등 광주 주요 관광지와 화순

운주사, 보성 녹차밭과 녹차해수탕, 순천 낙안읍성 등 이 지역 명소를 중심으로 코스를 구성해 관광상품 판매로 연결시킨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5월 상하이 지역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팸투어 이후 단체 관광객의 광주 방문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햇볕은 ‘뽕뽕’ 8월 16일 (음 7월 4일) <전국날씨>

대체로 맑겠고, 오후 한 때 구름이 많겠다.

광주	구름 조금	25~33℃
주요	구름 조금	25~31℃
포수	구름 조금	24~30℃
수도	구름 조금	24~31℃
대전	구름 조금	24~31℃
대구	구름 조금	25~34℃
부산	구름 조금	23~31℃
인천	구름 조금	24~32℃
서울	구름 조금	23~31℃
대전	구름 조금	24~31℃
대구	구름 조금	24~34℃
부산	구름 조금	24~32℃
인천	구름 조금	25~33℃
서울	구름 조금	25~33℃
대전	구름 조금	24~32℃
대구	구름 조금	24~32℃
부산	구름 조금	25~33℃
인천	구름 조금	24~32℃
서울	구름 조금	23~30℃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1.5m
남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남해북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2.5m
목포 밀물 < 04:17 썰물 < 09:30
여수 밀물 < 10:59 썰물 < 04:51

▲해돋이 05:52 ▲해질 19:21 ▲달돋이 08:48 ▲달질 20:54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주간날씨

날짜	17(금)	18(토)	19(일)	20(월)	21(화)	22(수)
날씨						
최저/최고	25/33	26/31	25/29	25/32	24/31	25/32

오늘 폭염주의보

광주·전남 뽕뽕 무더위

광주·전남지역의 15일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면서 주춤하던 더위가 다시 기세를 부리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6일 광주·전남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조금 끼겠고, 낮 최고 기온이 30~34도까지 올라 뽕뽕하다”며 “광주·나주·담양·곡성·구례·장성·화순·순천 지역에 폭염주의보(낮 최고기온 33

도 이상인 날씨가 이틀째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또 “남쪽에서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면서 열대야(熱帶夜·일 최저기온이 25도 이상)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고 전망했다.

이번 더위는 17일까지 계속된 뒤 토요일인 18일 비가 내리면서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5일 광주·전남지역의 낮 기온은 구례 33.5도를 최고로 ▲화순 32.7도 ▲나주 32.3도 ▲광주 31.4도까지 올라 무더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종합부동산세 부과 정당하지만 1주택자 과세 재산권 침해 우려”

서울행정법원 판결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하지만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과세 재산권 침해 우려가 과도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포함된 7억여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해 2월 종합부동산세 과세 통보를 받은 권모씨가 ‘8·3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새로 적용된 종합부동산세는 지나친 만큼 귀

소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시가격은 아파트 시가보다 낮게 형성돼 있어 과표 적용률(세액 산출을 위해 과세물건의 가액을 정하는 기준) 70%가 과도하지 않다”며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과다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과 더불어 1주택자의 재산권 침해 정도를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입법적 규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광주과기원 하반기 학위 수여식

박사 28명·석사 64명 학위

광주과학기술원은 16일 오후 행정동 1층 대강당에서 2007년 하반기 학위수여식을 갖는다.

수여식에서는 박사 28명, 석사 64명 등 모두 92명이 학위를 받게 된다.

이로써 광주과기원은 지난 97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뒤 석사 1천685명, 박사 364명을 배출하게 됐다.

학위수여식에서는 정보통신공학과 분석배 박사, 신소재공학과 임재홍 박사, 기전공학과 이상욱 박사가 우수연구상을, 환경공학과 이진형 박

사, 생명과학과 오정수 박사가 우수논문상을, 환경공학과 김정우 박사가 공로상을 받는다.

또 박사학위를 받는 졸업생들이 SCI(과학기술논문색인집) 등 논문 권수는 1인당 5.2편이었으며 임재홍 박사는 18편을 발표해 최다 저자로서 신소재공학과 남충희 박사는 8편에 홍 박사, 기전공학과 이상욱 박사가 우수연구상을, 환경공학과 이진형 박

/황대중기자 hwangtae@

산업현장 지식·기술 표준화 '직무능력 표준' 하반기 도입

올해 하반기부터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표준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도입된다. 직무표준이 도입되면 교육과정 이수 후 별도의 시험을 보지 않고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용접공이나 이·미용사가 되려면 어떤 기술과 지식이 필요한지 국가가 표준화된 매뉴얼을 만들고, 이에 맞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면 별도의 자격증 시험 없이도 자격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15일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방법 등을 담은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누구나 영세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당신을 고용 노동 최고의 VIP로 모십니다.

매일 100만원~200만원, 1인당 100만원, 100만원

34~48

쏟아져 내리는 냉·난방기 부담 없이 구입하세요

600평 공장의 난방비를 8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절감한 신기술

1/3로 줄었다

한정수량 예약판매 무상 지원금 혜택

TEMPIA

155-4222-0000-791-7117